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2시

저녁예배 7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8월 30일 (제80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암탉을 키워라

중국 상해에서 우리 회원이 복단대를 졸업하고 모스크바로 유학을 가는데 나의 기도와 조언을 듣고 싶다며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송다정이다.

“나는 다정다감한 사람도 좋지만, 분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하고, 자기의 색깔이 확실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란다. 무골호인(無骨好人)이란 말은 욕이야. 그런 자는 리더가 될 수 없지.

애야, 오늘 하는 일과 공부가 싫고 유학 가는 게 두렵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면 돼. 나는 네가 오늘의 계란을 먹지 말고 내일의 암탉을 키우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오늘 하는 일이 싫고 귀찮더라도 미래에 네 꿈이 이뤄질 것을 생각하고 달려 가면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30년, 50년, 100년 된 산삼이 있다고 하자. 30년이나 50년 된 산삼은 보통정도의 사람이 살 수 있겠지만, 100년 된 산삼은 산삼이 손님을 고르단다. 네가 100년 된 산삼 같은 존재가 된다면 기업도, 사람도 네가 고를 수 있고, 배필도 네가 고를 수 있단다. 또한 네가 영어, 중국어, 일어에 능통하다고 들었는데 다국적 사람이 되기 위하여 러시아와 스페인어까지 하면 좋겠다. 또한 여자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좋지만 내적인 아름다움, 곧 지식과 교양미가 넘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원(敬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네 가치는 네 스스로 높이는 것이니 천박해 보이는 옷차림이나 화장은 피해라.

애야, 습관이란 놈은 ‘나는 너를 성공도 시키고 실패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피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 고로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라. 네 인생은 네가 만드는 거야.

내가 오늘에 있는 것은 차선을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늘 최선을 다했단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거든. 네가 유학을 가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너를 보낸 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니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그 자매는 나의 말을 다 듣고 온 몸에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깨닫는 자가 복이다.

차선을 구하지 말고 오직 최선을 다하라

“I don't know the second best(나는 차선을 모른다)! I only know the best(나는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다)!”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부터 산상집회 기간 내내 외치신 제일 화두(話頭)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폐회예배까지 직접 인도하셨고, 산상집회 때는 매일 3시간이 넘게 불을 뿜는 설교로 혼신을 다하셨다. 진정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는 자세였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30년 사역의 원년에 목사님께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1명을 놓고 시작한 30년 사역

을 보이시는 목사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길인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왜 위대한지, 순수한 열정이 진정 무엇인지 절절히 보여주고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건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뿐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따라가길 권한다.

혹자가 말하기를 “목사님의 설교는 참 이해하기 쉬운데, 실천하기가 힘들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 이런 처절한 열정과 자세로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자만이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편한 길을 찾는 사람, 꾀를 부리는 사람, 차선부터 구하는 사람은 결코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없다. 그들은 일을 이루려는 생각보다는 피할 핑계부터 찾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은



“나는 차선을 모른다.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다!”

에 항구여일하게 추구해온 목사님의 목회철학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정치나 사업, 목회 뿐 아니라 매사 이런 자세로 임한다면, 목사님 말씀처럼 실패하는 게 기적이다. 사람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부터 인간사에 해당하는 모든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연구 노력하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얻는 결과이다. 그래서 “과정은 결과를 대변하지 못하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신앙의 문제부터 실제 삶에 적용되는 처세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지혜로써 모범

고 했다는데, 이는 결국 실천의 문제임을 잘 설명해준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게으름, 나태함이 주범인 것이다. 즉,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들을 때마다 아프게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또 있다. “이것이면 됐어.”가 아니다. “이것이려야만 돼!”이다. 따라서 목사님의 사전에 ‘대충’, ‘얼렁뚱땅’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목사님과 우리의 차이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얼마나 자신과 철저히 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성경도 말씀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같이 할 수 있지만,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끝까지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가는 사람은 앞에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피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앞길에 탄탄대로만 깔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더디 갈지언정 뒤로 물러간 적은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숭한 시행착오를 넘어 길을 찾아나가는 개척자의 모습을 본다.

오늘도 자문자답해보자.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코스타리카 집회

9월 15일(화) ~ 25일(금)
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객원컬럼::

소망의 힘

한 음악가가 친구와 함께 조용한 뒷골목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베토벤의 F장조 피아노 소나타가 들려왔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옷차림이 허름한 젊은이가 두 사람을 맞이하였습니다. 창가에는 한 소녀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 동생입니다. 동생은 장남이라 들리는 대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동생은 베토벤 선생님의 음악을 좋아해서 그분의 곡만 저렇게 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의 평생 소망은 그렇게 좋아하는 베토벤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것이랍니다.” 그 음악가는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제가 소녀를 위해 한 곡 쳐드릴까요?” 그는 달빛이 환한 창밖을 바라보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위에 켜놓은 촛불이 바람에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방안은 환한 달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달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처럼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더니, 하얀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지나가고 환한 달빛이 땅위에 쏟아져 내리듯 곡은 빨라졌습니다. 마치 밝은 달밤에 천사들이 나타나 춤을 추듯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건반 위를 바빠 달리던 그의 손이 드디어 멈추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누구십니까?” 신비한 멜로디에 감격해있던 소녀가 물었습니다. “이 분이 바로 베토벤입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베토벤의 손을 잡은 눈 먼 소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토벤은 눈 먼 소녀를 위

해 찾던 즉흥곡을 악보에 옮겼습니다. 바로 이 곡이 불후의 명작, 작품 27 피아노 소나타 “월광”입니다. 소녀의 강렬한 소망이 평생소원을 이루게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아름다운 소나타를 선사하게 된 것입니다.

근심, 걱정, 어려움, 질병 때문에 혹은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가 있어 절망하고 있나요? 절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절망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소망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능력을 몇 배로 증가시켜 주는 강력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쇠는 불에 달구어져야 강해지고, 추운 겨울을 보낸 봄 나무들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시련과 절망을 소망의 힘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의 비전이 더욱 분명하게 되며,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과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신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일에 대한 고상한 소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꿈과 고상한 소망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때 순간 순간 우리의 꿈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 먼 소녀에게 베토벤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지 않을까요?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파수꾼

수평선 낙조는 초명의 눈빛을 밝히며
총칼에 새 힘이 솟구치누나
검푸른 파도는 악령의 아우성
이 밤을 삼킬 듯 덮치누나
오-오 내 영아 깨어라 내 혼아 깨어라
사랑의 종소리 일출이 멀잖네
젖꼭지 물리는 어미의 사랑이 어둠 깨치우고
대지를 비치우리라

朋友

‘이전 것’으로부터의 해방

미국의 흑인 방송인이자 미 경제 언론인 포브스(Forbes)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1위에 오른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프라 윈프리(Oprah Gail Winfrey).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는 자신의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로도 사촌 오빠의 친구들과 어머니의 남자 친구 등으로부터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결국 14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마약 중독과 폭식으로 한때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방대한 양의 독서를 통해 삶의 지혜로 승화시켰고, 급기야 전 세계 120개국에 넘는 나라에서 수천만 명이 시청하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通婚)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욕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었을까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그 여인은 당황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은 상종 못할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한술 더 떠서 이전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소위 말하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아픈 과거를 다 아시고도 그녀에게 ‘영과 진리로(in spirit and in truth)’ 예배하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두가 고대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

게 쓰임 받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불행했던 유년 시절의 아픈 상처와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계속 좌절하고 낙담했다면, 그녀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끌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전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인으로 거듭 났습니다.

우리를 지나간 ‘이전 것’에 얽매이게 하고 좌절, 낙망,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전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신앙논객::



귀를 기울이세요

TV매체에서는 셰프들이 등장하는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페이스 북을 비롯한 SNS 등에서는 각자마다 맛집에 다녀온 인증샷이 넘쳐난다. 과거에는 살기 위해 먹었다면 이제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람들은 왜 먹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을까? 아마도 그것은 삶의 찝찝함을 먹는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일 것 같다. 요즘 현대사회를 찰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 포기)로 명명한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이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대충 한 끼를 때우려는 것에서 한 끼를 잘 먹어 ‘나의 피곤한 삶을 스스로 보상하자’라는 생각일 것이다. 그럼에 따라 어머니가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해주신 것 지은 따끈따끈한 밥과 별미 반찬이 가득한 ‘집밥’을 모두가 그리워한다. 집밥이 맛있는 이유는 딱 하나, 그 밥은 어머니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이다, 밥을 먹기 보다는 사랑을 먹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총회장 목사님은 우리에게 매주 두 번의 집밥을 준비해서 먹이신다. 그것은 금요예배와 주일예배인데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슬픔과 아픔, 피곤함을 한 번에 날려줄 따끈따끈하게 갓 지은 ‘예배’라는 집밥.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중심 교인들만을 위해 정성껏 기도로 준비하신 ‘예배’라는 집밥. 이 집밥을 먹고 오늘날 세상 속에서 승리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꿈 뒤에 숨지 마라!

국내 한 유명 연예기획사 사장이 젊은이들을 향해 이런 조언을 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삶의 다른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하거나 던져버리는 것은 ‘꿈 뒤에 숨는 것’이니 항상 자신의 의무와 주변인들에게 충실하라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이 수많은 연예인 지망생들을 심사하다 보니 연예인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다니던 학교부터 중퇴하거나 무조건 부모와 등을 지고 집을 나오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막상 오디션을 진행해보면, 그런 학생들의 실력이 더 뛰어나거나 우수하지 않을뿐더러 어떤 분야든 자신의 의무와 주변인들에게도 충실하며 삶의 자양분을 착실하게 쌓아둔 사람이 결국에는 유명해지더라는 것이다.

자신의 꿈을 핑계로 일상에 충실치 못한 것은 비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사회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와 봉사는 슬그머니 뒤로 미루는 모습, 직장생활이 피곤하다고 부모나 자녀

에게 무심한 모습 등, 우리 모두가 너무 쉽게 ‘꿈 뒤에 숨는’ 핑계쟁이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해야함을 늘 말씀하신다. 요셉을 보자. 어린 시절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이미 자신이 크고 높은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형제들로 인해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로서의 삶에 충실하여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냈고,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어도 성실을 무기로 간수의 인정을 받아내는 삶을 살았다. 자신이 큰 사람이 될 재목이라는 꿈만으로 노예나 죄수로서의 일상을 떨시하며 대충대충 보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총리의 축복과 자신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도 12세 나이에 성전에서 유대인 교사들과 토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

한 일임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이미 어린 나이에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직감하고 계셨던 것 같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 전까지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로서의 삶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셨다. 또한,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공생애 시작 전임에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요청하는 명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고통스런 순간에도 그녀를 제자에게 부탁할 만큼 어머니를 향한 효에도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다.

이번 여름상상집회에 참석해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뵈자니 그런 상념이 들었다. 총회장 목사님 역시 세계선교가 꿈이라는 이유로 국내서 드리는 크고 작은 예배를 한번이라도 대충 인도하신 적이 없고, 지나가는 성도 한 명도 불성실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앞으로도 우리 교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란 확신이 드는 이유다.

하인명

renming@daum.net

세상에 가겠다고 선행을 베풀거나 고행을 통하여 그 길을 찾아보지만 그 길은 끊긴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요14:6).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천국과 지옥은 죽기 전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격려해 주세요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도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던 날,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세 가지 유품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링컨 자신의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 한 장,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칼 하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조각. 그 신문에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신을 격려해주는 신문 기사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꺼내 보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맥아더 장군은 어린 시절 소문난 개구쟁이였다고 합니다. 골목대장으로 사고란 사고는 다 일으키고, 그런 그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장래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사람 그의 할머니만이 “너는 훌륭한 군인의 기질을 타고 났다.”며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는데, 결국 그는 한국전쟁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켰고, 그가 바로 전 미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칭찬과 격려의 위력은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해주는 한 주간 되세요!

Good News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왕이 죽자 시신을 앞에 두고 신하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연 우리 임금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그러자 평소에 왕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신하는 “우리 임금님은 분명히 천국에 가셨을 거야.”라고 했고, 왕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신하는 “아마 천국에 못가셨을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은 천국에 못가신 게 분명해.” 확신 있게 말하는 그에게 다른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생전에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준비하신 적이 없어. 우리 임금님은 준비 없이는 절대로 여행을 떠나지 않는 분이잖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9:27).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며,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꿈꾸며 노후를 준비 하지만,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이 부지기수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노후보다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상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도 모두 죽은 뒤에 좋은

세상에 가겠다고 선행을 베풀거나 고행을 통하여 그 길을 찾아보지만 그 길은 끊긴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요14:6).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천국과 지옥은 죽기 전에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시민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말씀의 이삭을 줍자

무더운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하늘이 점점 푸르러지고 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머잖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동안 노심초사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수답으로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은 농부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른 결실을 수확한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주변인’으로 힘든 인생의 시절을 보냈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멋진 청년으로 살아가 수 있는 수확의 시절은 찾아올 것이다. 또 중학교를 거쳐서 대학입시까지 수많은 노력을 들였던 입시생들에게도 기쁨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절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듯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

들뿐만이 아니다. 특! 하고 던져진 한국의 복음송이나, 화장실 문에 붙어있던 하나님의 말씀도 때가되면 결실을 맺는다. 유년시절 사탕의 단맛에 빠져 드나들었던 동네 예배당이 있었다. 그곳에서 유독 열심히 따라 붙었던 찬송가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었다. 의미도, 뜻도 모른 채, 교회에서 건네주던 사탕을 입에 물고 열심히 찬송가를 따라 불렀고, 세월이 지난 다음 나는 정말 소중한 주님의 양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 가끔씩 눈에 띄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세월이 지난 후, 나로 하여금 창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추수꾼이 되게 하는 힘이 되었다. “두려워말고 놀라지 말라”,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등등,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심비에 뿌리 내려지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난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세월이 흐른 다음 반드시 말씀의 이삭들이 우리 자녀들을 창대케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젃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